

작가미술장터 '셋보름미술시장' 가능성 봤다

9월 29~10월 3일 돌문화공원 5일 동안 본전시에 49점 판매 "미술품 비싸다는 인식 바꾸고 선택 폭 넓혀 구매 동기 부여" 이달 12일부터 도립미술관서



지난 1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삼다' 주제 신진·청년작가들의 작품 300여 점이 나온 셋보름미술시장 본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미술시장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출발이었다. 행사 시간 총 2000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고 작품의 16%가량이 팔려나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 지원 사업으로 제주에서 처음 열린 '2021작가미술장터'인 '셋보름미술시장'이다.

지난달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 동안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1층에서 이어진 셋보름미술시장에는 '삼다'란 주제를 해석한 청

년·신진 작가 101명의 작품 311점이 출품됐다. 평면은 물론 조각, 영상 등 미술 전 분야에 걸친 작품들이 나왔다. 작품마다 간략한 설명을 더해 미술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

이 중에서 총 49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됐다. 양민희·김소라·오

은희 작가의 작품은 완판 기록을 세웠고 임철민 작가는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인 4점이 팔렸다. 작가미술장터 사업은 참여 작가가 작품 판매액 전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셋보름미술시장'을 주관한 삼다트문화연구소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200만원대, 50만원대, 30만원대 등 저렴한 가격의 작품들을 판매해 미술품은 비싸다는 인식을 바꿨고 출품작이 다양해 선택의 폭을 넓힌 점이 통한 것으로 봤다. "지역에 많은 컬렉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김해곤 삼다트문화연구소 대표는 "그림을 구매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작품 구매의 동기 부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 기간 내내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채웠는데 특히 젊은 관객들이 많아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돌문화공원에서 본전시를 마친 셋보름미술시장은 이달 12~31일에는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로 향한다. 셋보름미술시장 특별전으로 101명의 작품 101점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일정과 별개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현장 서귀포예술단 창작 오페라 '이중섭'

꿈과 환상 오가며 압축한 생... 예술은 무엇인가

서귀포에서 마지막 병동까지 4막에 걸쳐 인간 이중섭의 삶 이중섭 아리아 뒤 '흰 소' 강렬 공들인 프로그램북 제공 눈길

오페라 '이중섭'은 서귀포시와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합창단, 관악단)이 이중섭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2016년 초연한 동명의 오페라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첫선을 보였고 이번엔 제주 관객들과 처음 만났다.

지난 5년간 꾸준히 변모해온 이 작품은 서귀포 시절, 미도파 개인전, 마지막을 보낸 병동 등 4막에 걸쳐 현실과 꿈, 환상을 오가는 구조로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압축했다. 러닝타임은 인터미션(20분) 포함 2시간이었다. 서귀포 앞바다를 배경으로 돌담과 초가가 어우러진 1막 세트에

일체감이 더해졌고 '삶이 보이는 풍경'을 비롯 '흰 소', '황소', '길 떠나는 가족' 등 이중섭의 그림들이 무대 미술에 녹아들며 불거리를 안겼다.

첫날 현장에서 본 '이중섭'은 테니 김동원이 열창한 이중섭의 아리아 '흰 소'가 영상으로 등장하는 장면 등 인상적 연출을 보여줬다. 이중섭이 겪는 가난과 외로움, 창작의 고통은 그와 교류했던 예술가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면서 구상, 광림 등 '친구들'의 비중도 높았다. 또한 정호진(광림역), 전성민(태응역) 등 서귀포합창단원 7명이 조역 등 배역을 맡아 서귀

포관악단의 연주와 더불어 제주산 오페라의 의미를 살렸다. 30여 곡의 아리아와 중창, 합창이 흐르는 동안 핀 마이크를 쓰지 않고 비교적 낡것 그대로의 성악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점도 신선했다.

공연에 앞서 관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24쪽의 프로그램북은 서귀포예술단의 노력이 돋보인 자료였다. 출연진은 물론 곡목 소개, 작곡·연출 노트, 무대 디자인, 시놉시스, 대본 등을 실어 오페라 '이중섭'에 가깝게 다가서도록 이끌었다. 공연 중에는 영문을 병기해 무대 양쪽에 모니터로 자막을 띄웠다. 공연 자막은 원어 해설 등 극의 이해를 돕는 한편 무대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우리말 공연까지 자막을 달면서 배우들의 틀린 가사가 들리는 일도 있다. 자막 활용도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 섬 공예 공간 10일간의 축제

제주공예축제 27곳서 진행

제주 섬에 흩어진 공예 공간이 10월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이 주최하고 064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공예축제 공역사-제주 크래프트 워크'다. 제주 공예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이번 축제는 '공예의 경계, 감각의 사이'란 이름을 달았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27곳에서 즐길 수 있는데 도자, 금속, 섬유 등 공예 공방만이 아니라 편집숍, 갤러리,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카페, 플라마켓 등 공예 관련 자원을 망라했다. 이 기간에는 제주공예축제에 참여한 공간별로 사전 예약제를 통해 원데이 클래스, 공예 체험, 전시, 할인 판

매 등이 잇따른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오창은 제주대 교수는 "기존 축제 방식과는 달리 여러 공예공간을 스카웃으로 만들어 시간과 공간 범위를 확장한 행사"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공예축제 홈페이지(www.jejucraft.com) 참고.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황학주의 제주살이(4)

작은 정원 관리사의 시간

며칠에 걸쳐 마당의 풀을 때는 것에서 시작해 잔디를 깔고 여름 동안 미루던 전지 작업을 했다. 흰해진 마당을 고양이 루코와 야루가 먼저 지나간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자주 눈이 가는 방향이 있다. 아무리 가까워도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그들도 눈치가 있다. 그들도 서로 바라보는 곳이 있다. 나는 마당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보고 있다.

우리집 담장을 두르는 나무는 동백, 담팔수, 왕벚나무, 야생무화과, 소나무 등이며 대나무는 이웃과 경계하는 북쪽에 치우쳐 줄지어 있다. 내 시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는 현관 가까이 서 있는 2미터 높이의 올리브나무이다. 올리브나무 한 그루만 키웠으면, 하던 오랜 소망은 올리브 나무잎이 가진 '숨은 초록'의 매력 때문이었지만, 대바람 소리를 듣고 싶어 맹종죽을 심은 것은 정말 만년(晩年)은 귀가 닫히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집 입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연못이 모서리에 있다. 수련과 두어 가지 수초가 자라고 그로의 성악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점도 신선했다. 공연에 앞서 관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24쪽의 프로그램북은 서귀포예술단의 노력이 돋보인 자료였다. 출연진은 물론 곡목 소개, 작곡·연출 노트, 무대 디자인, 시놉시스, 대본 등을 실어 오페라 '이중섭'에 가깝게 다가서도록 이끌었다. 공연 중에는 영문을 병기해 무대 양쪽에 모니터로 자막을 띄웠다. 공연 자막은 원어 해설 등 극의 이해를 돕는 한편 무대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우리말 공연까지 자막을 달면서 배우들의 틀린 가사가 들리는 일도 있다. 자막 활용도 고민이 필요하다.

출하지 않는다. 원밭이 조금 나아갓 바쁜밭이 조금 나아갓 번식하는 그대로를 보며 이기 속에서 올라와 덩치가 커진 풀을 뽑아 주거나 한 번씩 물을 주는 것 말고는 하지 않는다. 세월도 못 되고 풍경도 못 된 그런 세월도 지나고 풍경도 지나며 우리가 함께 지나는 시간들, 정원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정원에 여러 미술 같은 풍경이 있다. 햇빛이 가지 사이로 떨어지면 잔물결이 일듯 살아 있는 것들의 색은 일제히 몸을 띤다. 나는 화단 한쪽에서 마치 아랑곳없다는 듯이 안경알을 닦으며 책장을 넘긴다. 그렇지만 온도가 몇 도 떨어질 때까지 사실은 색이 더해지고 나뉘고 사라지기도 하는

정원에 있는 미술 같은 풍경 가지 사이로 햇빛 떨어지면 살아 있는 것들의 색 몸 떨고

정원 주위를 조심스레 보고 있다. 그리고 생각한다. 흰눈처럼 풀씨 날리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무릎 위에 다스곳이 마른 손을 포개고 있던 노부부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10월의 햇빛은 잔디와 풀들의 뿌리에 닿고, 고양이의 발끝까지 보드랍게 내려간다. 정원의 모든 가을꽃들의 낮잠 속으로 함께 들어가려는지 나비 한 마리가 수풀 아래로 간다. 상한 영혼이 꽃대처럼 흔들릴 때 사랑을 더하고 싶은 것뿐인데 이렇게 맨발로 정원을 밟는 정원사의 시간은 속절없이 가고 있다. <시인>

'다크투어...' 읽으며 걷기

달리도서관이 10월 '도박도박 읽고 걷다' 주제 도서로 '다크 투어, 슬픔의 지도를 따라 걷다'를 정하고 이달 10일 오후 2~5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를 돌아본다.

이날 행사엔 김영정 작가와 함께 책의 배경이 된 마을을 직접 걸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 신청은 달리도서관 인스타그램 등 참고. 문의 702-0236.

탐라문화계 문학계 공모

제주문인협회가 제6회 탐라문화계 문학계로 제주어 시낭송 대회, 제주어 동화구연 대회, 전국 문학작품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에는 제주어 동화구연 33명, 제주어 시낭송 56명, 전국 문학작품 공모전 119편이 접수됐다. 전국 문학작품 공모 일반부 수상자는 탐라상 고미자(제주), 한라상 김완수(전주) 김재윤(제주)씨다.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경기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은 물류센터